혹자는 ‘개념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기마다 시행되는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고전11:31) 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게 작성된 신앙교육서와 교리서들을 참고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의미와 교훈들이 성경과 교리의 체계 위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 장**

1.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기 살과 피에 대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 성례는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이 성례는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익을 참 신자들에게 인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분에게 빚진 모든 의무에 더 깊이 관여하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그분과의 교통과 성도 간의 교통을 결속하고 맹세하는 것이다.1)

Our Lord Jesus, in the night wherein He was betrayed, instituted the sacrament of His body and blood, called the Lord's Supper, to be observed in His Church, unto the end of the world, for the perpetual remembrance of the sacrifice of Himself in His death; the sealing all benefits thereof unto true believers,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Him, their further engagement in and to all duties which they owe unto Him; and, to be a bond and pledge of their communion with Him, and with each other, as members of His mystical body.

1) 고전11:23-26; 10:16-17,21; 12:13

2.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성부에게 바치는 것은 아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실제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2) 다만 그분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송의 영적 봉헌일 뿐이다.3) 그러므로 천주교의 (자칭) 미사 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지극히 가증스럽게 부정한 것이다. 그분만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는 유일한 희생제물이시다.4)

In this sacrament, Christ is not offered up to His Father; nor any real sacrifice made at all, for remission of sins of the quick or dead; but only a commemoration of that one offering up of Himself, by Himself, upon the cross, once for all: and a spiritual oblation of all possible praise unto God, for the same: so that the popish sacrifice of the mass (as they call it) is most abominably injurious to Christ's one, only sacrifice, the alone propitiation for all the sins of His elect.

2) 히9:22,25-26,28 3) 고전11:24-26; 마26:26-27 4) 히7:23-24,27;10:11-12,14,18

3.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에 자기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그들은 그분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거기에서 보통의 것과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구별하여 두고, 가져다가 떡을 떼고, 잔을 들고, (자신들도 수찬에 참여하면서) 수찬자들에게 두 가지 모두 나누어 준다.5) 그러나 그때 모임에 불참한 자는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6)

The Lord Jesus has, in this ordinance, appointed His ministers to declare His word of institution to the people, to pray, and bless the elements of bread and wine, and thereby to set them apart from a common to an holy use; and to take and break the bread, to take the cup, and (they communicating also themselves) to give both to the communicants;[5] but to none who are not then present in the congregation.

5) 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고전11:23-26 6) 행20:7; 고전11:20

4. 사제나 다른 누구 혼자서 베푸는 개인적인 미사 또는 그런 성례를 받거나,7) 마찬가지로, 회중에게 잔을 주지 않거나,8) 떡과 포도주에 예배하거나, 그것을 동경하여 들어올리거나 지니고 다니거나, 다른 종교적 목적을 사칭하여 남겨두는 것은 모두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 취지에 위반된다.9)

Private masses, or receiving this sacrament by a priest, or any other alone; as likewise, the denial of the cup to the people,[8] worshipping the elements, the lifting them up, or carrying them about, for adoration, and the reserving them for any pretended religious use; are all contrary to the nature of this sacrament, and to the institution of Christ.

7) 고전10:6 8) 막14:23; 고전11:25-29 9) 마15:9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에 따라 정식으로 구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실제로, 그러나 단지 성찬식에서 때때로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관계가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이전처럼 여전히 실제로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을 뿐이다.11)

The outward elements in this sacrament, duly set apart to the uses ordained by Christ, have such relation to Him crucified, as that, truly, yet sacramentally only, they are sometimes called by the name of the things they represent, to wit,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lbeit, in substance and nature, they still remain truly and only bread and wine, as they were before.

10) 마26:26-28 11) 고전11:26-28; 마26:29

6. 사제의 성별이나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교리(일명 '**화체설**')는 성경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이 교리는 성례의 본질을 뒤집는 것이고, 잡다한 미신과 더러운 우상숭배의 원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12)

That doctrine which maintains a change of the substance of bread and wine, into the substance of Christ's body and blood (commonly called transubstantiation) by consecration of a priest, or by any other way, is repugnant, not to Scripture alone, but even to common sense, and reason; overthrows the nature of the sacrament, and has been, and is, the cause of manifold superstitions; yes, of gross idolatries.

12) 행3:21; 고전11:24-26; 눅24:6,39

7. 이 성례의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13) 또한 실제로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모든 유익을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고 먹는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에 육체적으로 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 자체가 외적 감각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의식 안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하시는 것이다.14)

Worthy receivers, outwardly partaking of the visible elements, in this sacrament, do then also, inwardly by faith, really and indeed, yet not carnally and corporally but spiritually, receive and feed upon, Christ crucified, and all benefits of His death: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eing then, not corporally or carnally, in, with, or under the bread and wine; yet, as really, but spiritually, present to the faith of believers in that ordinance, as the elements themselves are to their outward senses.

13) 고전11:28 14) 고전10:16

8.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상징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합당하지 않은 참여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분과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상태에 남아 있다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15) 허용될 수도 없다.16)

Although ignorant and wicked men receive the outward elements in this sacrament; yet, they receive not the thing signified thereby; but, by their unworthy coming thereunto, ar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to their own damnation. Wherefore, all ignorant and ungodly persons, as they are unfit to enjoy communion with Him, so are they unworthy of the Lord's table; and cannot, without great sin against Christ, while they remain such, partake of these holy mysteries, or be admitted thereunto.

15) 고전11:27-29; 고후6:14-16 16) 고전5:6-7,13; 살후3:6,14-15; 마7:6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68.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서,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169.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받으라고 명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명하여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수찬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곳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171.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서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서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신이 그리스도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납된 자이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173.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받게 할 수 있을까?**

신앙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 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174. 성찬식 거행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찬식 거행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이다.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서 자신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함이다.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 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가지에서 더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가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176. 세례와 성찬은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것은 두가지이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구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같은 언약의 인치심이라는 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의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177.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서 접붙임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 까지 단 한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7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복과 은사에 당신이 참여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거행하는 목사의 손에서 그 떡과 잔을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더욱더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영혼에 의해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살고 다스림을 받듯이, 또한 한 성령에 의해 우리가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24)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25)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6)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16)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17)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고전 10:16-17)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35 조 주의 만찬의 성례**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育成)하시고 양육(養育)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첫 번째 탄생으로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두 번째 탄생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정하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 주셨는데(요6:51),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의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의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 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의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의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 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추어진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고전11:28-29).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나 또는 혼합시킨 모든 가증한 고안물을 성례의 모독으로서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96.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97.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